

## 1. 2020학년도 수능

[1~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흥미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 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곧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사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획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A]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고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나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 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일로 슬픈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씨가 잠시동안 탄식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B] 어머니와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_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 1.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3.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 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 2.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5~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총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 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랴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나?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나?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꿇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작자 미상, 「장끼전」-

\*현양: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찹을 나눠 먹는다.

\*추심: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 6.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종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 3.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8~1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A] 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뻗뻗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전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총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뒷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뒷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이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복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이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 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강충강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 이까?”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 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참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 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

[B] 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옹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빠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러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작자 미상, 「조옹전」-

8.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옹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10.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웅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웅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웅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웅이 거론되는 것은, 조웅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웅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웅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웅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4. 2019학년도 수능

[12~1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가?’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附屬)\*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흥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흥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빚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顏)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몸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시다.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궐문 밖에  
[A]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오  
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촛철이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  
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

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B]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중략)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앙양(愜快)하여\* 불촉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흥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삐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며 자점을 울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고 왈,

“너희 아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작자 미상, 「임장군전」-

\*부촉:부탁하여 말김.

\*패초: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름.

\*양양하여: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여.

### 12.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 13.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흥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의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 14.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대역 김 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라."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조회 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 5.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1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동이 대희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뒷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느뇨?”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글을 내여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가]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도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철관을 쓰기에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도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홍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홍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께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려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췌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은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늪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읊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㉔상께서 신에  
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  
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를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요?”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  
하니, ㉕뒷일은 어찌 되고? 다음 권을 불지어다.

-「홍길동전」-

1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③ 홍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16. [가]의 ㉔~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② ㉕는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㉔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㉕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④ ㉔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㉕와 ㉔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㉔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㉕와 ㉔는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㉑~㉕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㉑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여려는 것이겠군.
- ② ㉒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③ ㉓은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④ ㉔는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㉕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 6.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2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 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

[A] 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흑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열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

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웃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재를 보았다.”

노복 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중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

요, 둘째는 유결산승 옥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  
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  
[B] 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  
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  
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  
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작자 미상, 「옹고집전」-

\*선자: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1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  
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  
고 있다.
- ④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못한 채 서러워하  
고 있다.
- ⑤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  
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  
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  
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  
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  
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  
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  
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  
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  
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  
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  
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  
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  
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  
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  
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  
걸식’하며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21.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

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  
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 7. 2018학년도 수능

[22~2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

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서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뜯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㉞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장강 :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첩여 :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황릉묘 :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 : '유 한림'이 곧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 22.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2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와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와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 라는 김시습의 시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제시된 바와 조용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8.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6~30]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A]

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느냐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고?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태어 푹푹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삭하며 다니다가, 돈 한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두경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서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왈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두경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箚)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넋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쏘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돌려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박랑사 :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B]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잡을 데 없으시면 ㉠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이리 한참 힐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놈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㉞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  
 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량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꺾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언젠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㉟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나도 ㉞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증삼 :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 따뜻하고 좋은 봄철.

2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 :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는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 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걱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올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뜨리고자하는 모습을 통해,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희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눈 나올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겠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겠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겠군.
-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겠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9.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3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  
니잇가?”  
성의를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보  
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  
이 감동함이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  
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갈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  
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  
옛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는지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  
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  
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  
심이라.”  
하고,  
“잠간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송라  
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  
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  
여 극락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  
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  
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이 약이 일영주니 바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A]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 곤액(困厄)\*이 있으  
나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향의에게 공격  
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  
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  
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이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  
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즉 낮인 줄 짐작하  
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  
라. 놀래  
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  
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B] 인명을  
창파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  
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  
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  
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  
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욱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공자가 불  
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  
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삼경의 추풍은 삼  
삽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야성  
(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  
성과 창파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  
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첩첩원  
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

니 문득 ㉠청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촉나라 땅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짚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 먹으니 배 부른 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에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지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소리 처량하여 산천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벼을 삼아 심회를 덜며 일본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 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고요한데,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헤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불러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겨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작자 미상, 「적성의전」-

\*혐의:꺼리고 미워함.

\*곤액: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사형: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단저:짧은 피리.

### 3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두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 32.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금세에 형제 됨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 ⑤ ㉤: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③
5. ①
6. ⑤
7. ④
8. ③
9. ⑤
10. ①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③
19. ③
20. ①
21. ④
22. ②
23. ④
24. ①
25. ⑤
26. ④
27. ④
28. ④
29. ③
30. ⑤
31. ③
32. ③
33. ④
34. ③